

## 서점가 점령한 21세기형 위인전

전문분야에서 성공한 생존 인물 다뤄...  
성공에 대한 환상 심어줄 위험 있어

어린이를 위한 위인전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순신 장군이나 에디슨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컴퓨터 전문가는 물론 연예인이나 만화가 심지어 프로그래머가 존경의 대상이다. 이제 위인은 '전문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사'를 뜻한다. 최근 출간되는 위인전은 '새로운 인물'을 다양한 형식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는 꿈을 먹고 자란다.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책으로 위인전만한 것은 없다. 지금 30~40대의 성인들은 어린 시절 주로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혹은 헬렌 켈러나 에디슨을 읽으며 자랐다. 그만큼 어릴 때 꿈도 대부분 장군이나 대통령,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 다양한 생존 인물 쉽고 재미있게 다뤄

그러나 요즘 어린이들은 더 이상 장군이나 대통령을 꿈꾸지 않는다. 대신에 컴퓨터 전문가나 프로그래머, 연예인, 만화가가 되길 희망한다. 부모들도 아이들의 장래희망에 개의치 않는 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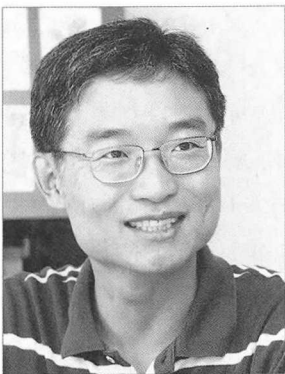
그래서 요즘 서점가에 쏟아져 나오는 위인전의 양상도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인물 선정부터 서술방식, 편집 등에서 과거와 차이가 뚜렷하다. 주로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이 활동하는 분야도 폭넓다. 컴퓨터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대중 예술가가 있고, 연예인도 등장한다. 이제 위인의 정의는 '전문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사'로 바뀌었다. 또한 이런 책들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내용의 대부분을 이야기식으로 꾸미거나 인터뷰·만화를 곁들인 편집기법을 동원해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도록 유도한다.

우선, 파란자전거의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시리즈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인전이다. 지금까지 <넥타이를 잘라버린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우일문 글·김수자 그림)을 비롯, <쥬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적인 연주자 정명화·정경화·정명훈 남매,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 인터넷 사업가 손정의,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등을 다뤘다. 한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찬진, 의사 노먼 베순도 곧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이 시리즈는 생존 인물들 중에서 분야별로 국

### “친근하면서도 본받을 만한 인물 골랐어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시리즈 기획자 김흥식씨



소개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 인물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아이들이 친숙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면서, 아이들에게 격려와 모범이 되는 사

파란자전거는 올해 초부터 <똥을 줍던 아이는 어떻게 세상을 얻었을까>를 시작으로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시리즈를 꾸준히 내면서 잔잔한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시리즈를 기획하고 집필에도 참여한 프리랜서 기획자 김흥식씨(43)를 만났다.

— 시리즈의 기획 동기가 궁금하다.

“솔직히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읽고 싶어서 보는 아이는 없다. 아이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람이다. 아이들의 삶과 유리된 위인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목표달성 과정의 성실성과 인품을 고려했다.”

— 최근 이와 유사한 위인전들이 붐을 이루는 듯하다.

“요즘엔 자녀가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이 줄었다. 대신 뭔가 재능 하나를 키워서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침반’이 될 만한 것을 찾다 보니 이런 위인전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다.”

— 이런 류의 위인전이 아이들에게 성공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거나 성공을 최대의 가치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위인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인간이 본받고 싶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더욱이 백지상태에서 막 인생을 설계하는 아이들에게 실패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할 수는 없다. 대신 성공한 사람만 소개하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내 혹은 세계 일인자들이라 할 만한 인물들을 다룬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인물의 생애를 개성적인 일화를 중심으로 소개했으며,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울인 부단한 노력과 성공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백남준의 경우, 끊임없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공연에 얽힌 일화를 통해 주인공의 예술관과 성공비결을 소개한다. 이 시리즈가 강조하는 성공비결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포부와 노력, 창조정신과 성실함 같은 덕목들이다.

### 달라진 위인 개념 실감케 해

국내의 각 분야 일인자들만 골라서 소개한 책들도 있다. 《나도 큰 인물이 될래요(1·2)》(이희재 글·그림, 웅진시스템)는 컴퓨터바이러스 연구가 안철수, 임권택 감독, 김수환 추기경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조금은 낯선 요리연구가 황혜성, 일본에서 조선도공의 정신을 잇고 있는 심수관 등을 만화형식으로 다뤘다. 지은이의 꼼꼼한 취재가 바탕이 된 이 책은 인물들의 성공 이면에 숨은 노력을 강조한다.

김영사에서 펴낸 《어린이 성공시대》는 동원육영재단에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열고 있는 명사초청특강을 책으로 엮었다. 한국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 김강자, 개그우먼 김미화, 김정태 주먹은행장, 조류학자 윤무부 등 13명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비결, 성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들려준다.

우리교육이 출간한 《물고기박사 최기철 이야기》(이상권 지음)와 《옥수수 박사 김순권 이야기》(조호상 지음)는 어린이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과학자를 발굴해 다뤘다. 각각 물고기 연구와 옥수수 품종 개발에 평생을 바친 주인공의 삶을 새롭게 조명했다.

한편, 길벗어린이에서 출간한 《어린이를 위한 영웅의 책》(윌리엄 J. 베넷 지음, 윤소영 옮김)은 앞서 언급된 책과는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위인을 다루는 책. 가까이 사는 따뜻한 이웃과 선생님, 성직자, 부모 등이 이 시대의 진정한 위인 혹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위인전들은 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우선, 폭넓은 인물 선정이 돋보인다.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생애를 다양한 장치로 서술, 어린 독자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 “가치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책 펴내야 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사회부장 여을환씨



어린이도서연구회 사회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위인전을 정기적으로 수집·평가해왔다. 사회부장 여을환씨(34)는 최근 어린이 위인전의 경향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요즘 어린이 위인전들은 하나같이 ‘성공시대’나 ‘성공비결’이니 하는 말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요. 사실 TV나 성인출판물에서 유행하는 성공담을 아이들 책에 그대로 끌어왔다든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는 위인전도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수긍한다. 최근 위인전들은 어린이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소개되는 인물이 과학·문화·예술 분야로 확대되고, 현대 인물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책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꿈을 심어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인전이라고 하면 ‘훌륭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이런 책들에서는 ‘훌륭한’이 곧 ‘성공한’이 돼버리거든요.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믿는 부모가 자식이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책들을 사고, 출판사들은 그걸 노리고 책을 만드는 게 문제죠.”

그는 혹 어린이들이 이런 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린이들의 욕구가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됐을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좀더 가치있고 보람있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공감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자료수집과 취재를 했다고 누구나 어린이 위인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 위인전을 쓰는 전문적인 작가가 필요합니다.”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굵지 않은 시선도 있다. 컴퓨터·예술 등 몇몇 특정 분야의 인물들로 대상이 제한돼 있고, 무엇보다 차츰 아이들에게 성공에 대한 환상과 ‘성공만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김정은 기자

### 밀의 공리주의

허남걸 지음/192면/7,000원

이 책은 밀이 벤담의 공리주의를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했는지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밀의 공리주의가 행위자의 도덕적 품성을 행위의 결과보다 먼저 고려함으로써 덕론과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풍부한 밀의 사상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플라톤의 물질 문제

디트리히 오희임 솔츠 지음/이경직 옮김/272면/9,000원

이 책은 단순히 플라톤의 공간 개념을 해석하고 있다기보다 저자 나름대로 플라톤의 물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현대 과학에 비추어 플라톤의 물질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한다. 공간 개념이나 물질 개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 강영계 교수의 철학 이야기

강영계 지음/352면/10,000원

이 책은 서양철학을 누구라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서양철학사에 한 획을 그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82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 924-6161 편집 924-6165 팩스 922-4993

E-mail : phil6161@chollian.net

http://www.seokwangsa.co.kr